

취재요청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 담당 기자
발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문의	민주노총 서울본부 최예륜 조직국장 010-9958-7347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왕복근 조직국장 010-2417-2148
제목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일 시 : 2024년 4월 2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시청 앞
- 주 최 :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원이라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가장 앞에서 실행해오며 사회의 사각지대까지 돌봄을 확장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위기는 공공돌봄의 위기입니다.

○ 사회의 변화 속에서 공공돌봄은 필수노동입니다. 한 사람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한 시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돌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돌봄노동을 열악한 조건의 노동, 저임금의 노동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돌봄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돌봄서비스를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들은 공공돌봄의 확대를 요구해왔습니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이런 공공돌봄의 요구 속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요양, 보육, 장애인 지원 등의 복합적 서비스를 서울시가 직접 제공한다는 취지로 출범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한 “약자와의 동행”을 가장 앞장서서 실현할 수 있는 서울시의 공공기관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입니다.

○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를 부도덕한 사람들로 치부하며, 노동자

에게 임금을 낮춰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을 받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에게 154만원의 기본급을 받으며 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에 열악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공공돌봄의 첨병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고 공공돌봄이 축소되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민주노총 서울본부 /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 서비스연맹 서울본부 /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 너머서울 / 전환서울 / 플랫폼C / 빈곤사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노동당 서울시당 / 정치하는 엄마들 / 사단법인 희망씨 / 진보당 서울시당 / 녹색정의당 서울시당 / 서울민중행동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노들장애인야학 /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 장미 / 영등포산업선교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녹색당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 장애여성공감 / 홈리스행동

(4월 1일 기준 27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참여중. 추가중)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너머서울 /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사무국장

내용	발언자
경과보고	사회자
여는발언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혜정 수석본부장
투쟁발언 1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투쟁발언 2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노우정 지부장
향후투쟁계획 발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이현미 본부장
연대발언 1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연대발언 2	너머서울 공공의료팀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중량요양원분회 최현혜 분회장
발족선언문 낭독	참여단위 함께 읽기

<첨부 1> 발족선언문

<첨부 2> 공대위(준) 활동 경과보고 및 활동계획

<첨부 1>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

1. 누구에게나 돌봄이 필요하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의 돌봄에 기대어 살아간다. 우리가 구성한 사회는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적절히 입고 먹고 마시며, 적당한 곳에서 거주하고, 서로를 돌봄으로써 서로를 함께 지켜나가는 곳이다. 특히 몸이 아픈 환자,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무력무력 자라나는 어린이와 같이 돌봄이 더 필요한 사람이 존엄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돕고 복돋는 것은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돌봄은 곧 사회요, 공공의 안녕 그 자체다.

2. 돌봄은 필수노동이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은 한 사람이 존엄한 삶을 이어가도록 보살피고 지원하는 고된 노동이다. 돌봄노동은 결코 손쉬운 일도 허드렛일도 아닌, 한 사람을 사회 구성원으로 살게 하는 고귀한 노동이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보육대체교사, 초/중등돌봄전담사, 지역아동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산모건강관리사, 다문화교육지원사 등 150만 노동자가 저임금, 단시간, 불안정한 노동조건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돌봄노동자가 고령이라고, 여성이라고, 이주민이라고 해서 노동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돌봄노동자의 존엄한 노동을 더이상 후려치지 말라.

3.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도입되기 시작한 사회서비스 분야는 수많은 문제점으로 얼룩져있다. 민간서비스 기관 난립과 공공성 부재 상황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제한적 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노동자도 이용자도 행복하지 않은 사회서비스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수많은 이들이 제기해왔다.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명문화하는 취지로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고, 지역별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졌다. 특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성을 담보한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운영이라는 공공돌봄의 거점이 되었다.

4. 공동돌봄의 거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말라!

돌봄서비스를 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19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졌다. 제대로 된 공공돌봄을 원하는 서울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내기 위해 돌봄센터, 어린이집, 종합재가센터,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해왔던 곳이 바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다. 그런데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돌봄의 거점인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공공어린이집 등 시설을 통폐합하며 공공돌봄의 책임을 축소해왔다. 나아가 지난 2월 5일 국민의 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 효율성을 거론하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폐지조례를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공공돌봄 강화를 원하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요구와 안정적인 고용을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수십만 돌봄노동자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중단되어야 한다.

5.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공공돌봄 확충을 위해 함께 나서자

우리 돌봄노동자들과 시민들은 돌봄노동자의 존중받는 인간다운 노동과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존엄한 삶의 지속이 곧 하나로 연결된 문제임을 안다. 우리는 서로의 노동과 돌봄에 기대어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켜나갈 것이다. 돌봄노동은 한 사람과 이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노동이며, 적절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공공돌봄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천만 서울시민과 수십만 돌봄노동자의 뜻을 모아 한 목소리로 공공돌봄의 거점이자 희망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함께 지키고 강화하는 데 나설 것이다. 돌봄 공공성을 부정하고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을 후퇴시키려는 자들은 우리들의 단결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공공돌봄 거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말라!

공공돌봄 외면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규탄한다!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로 공공돌봄 쟁취하자!

2024년 4월 2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 활동 경과보고 및 향후 활동계획

1. 서사원 관련 현황 및 공대위(준)공동대응투쟁 경과

- 2022년 12월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2023년 예산 전년 대비 100억 삭감(서울시는 42억 삭감안 제출)
- 2023년 4월 서사원측,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운영 종료, 종합재가센터 축소 등이 담긴 혁신안 발표
 - 2023년 종합재가센터 운영 축소(12개소 → 5개소)
- 2023년 9월 서사원측, 기존 혁신안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단체협약 변경 등 추가한 혁신안 추진
- 2023년 9월 서사원측, 송파든든어린이집 수탁운영 종료
- 2023년 10월 서사원측, 나머지 6개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수탁운영 종료 추진(2024년 6월 완료 목표), 데이케어센터 2개 수탁운영 종료 추진
- 2023년 11월 공공운수노 서사원지부, 서사원 설립 이래 최초로 보육교사 파업(15일)
- 2024년 2월 5일 국민의힘 시의원 중심 조례폐지안 상정
- 2024년 3월 4일 조례폐지안 유보된 상황으로 임금체계개약 및 , 단협개약, 위탁사업의 종료 등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 2024년 02월 05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임금체계 개약 반대 기자회견
- 2024년 02월 16일 위 노동조합단위, 시민사회와 함께 공대위 구성 추진 결의, 집중선전전 등 공동투쟁 전개함.
- 2024년 02월 20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의 대응 집중선전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저지 이어 말하기
- 2024년 02월 2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의 대응 집중선전전
- 2024년 03월 04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저지 집중선전전 및 결의대회
- 2024년 3월 11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수 결의대회 진행함.
- 2024년 03월 21일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원 2주년 기념식 기습시위 전개 및 항의서한 전달
- 2024년 03월 19일 폐지조례발의 서울시의원 규탄 현수막 게척활동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정의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명의 현수막을 제작, 폐지조례 발의 서울시의원 각 지역구에 게척 실천 “저출생 고령화 시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내팽개친 00구 서울시의원을 규탄한다!)
- 2024년 03월 26일 폐지조례 발의 시의원 소속 지역구국힘 총선 후보 규탄 피케팅
(폐지조례 발의 서울시의원 강석주, 김영옥, 유만희, 최호정, 이종배 의원 규탄 피케팅 전개. 강서, 광진, 강남, 서초, 서울시의회 앞)

2. 향후 활동계획(논의중 초안)

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 저지 및 서사원 사수 투쟁

(1) 서울시의회 4월 임시회 대응 : 2차 저지 투쟁

- 조례폐지 저지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앞 집중선전전 및 결의대회 추진

- 4월 19일 서울시의회 개회에 맞춘 총력투쟁 준비, 조직

※ 제323회 임시회 4.19(금) ~ 5.3(금) [15일간]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4. 10.

※ 시정질문 : 4.22~24(3일간)

(2) 사회서비스원 강화,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지속적 집중투쟁 전개

○ 개정 서사원법 시행시기인 7월 24일까지 중장기 대응투쟁 대비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실천-조례 폐지를 막는 투쟁을 전개하되, 폐지되더라도 지속적 투쟁 전개.

○ 저출생 시대 공공돌봄 폐지 추진하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 가정의 달 기획 투쟁

○ 5월 가정의달 공공돌봄 행진(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진)

○ 22대 총선 당선자 공공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필요성 전달

○ 5월 가정의달 토론회 ‘저출생/고령화 시대 공공돌봄이 대안이다’

○ 6월 최저임금투쟁과 돌봄노동자의 요구 제기

○ 7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2주년 규탄, 요양보호사의 날

○ 7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내용 관련 서울시 이행 촉구

2) 오세훈 서울시 대응 공공성 쟁취 투쟁

○ 오세훈에게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노동자/시민 목소리

○ 서울시 공공성 사업

- 서울시 공공성 워크숍

서울시 공공성 의제 서울시의원, 국회의원 면담

서울시 공공성 행진

3) 돌봄정책, 제도 토론 및 공공돌봄 강화 홍보, 조직사업

○ 돌봄 정책 분석, 토론 및 제도 개선 대응 활동

○ 공공돌봄 강화를 위한 홍보, 조직사업

- 서사원 설명자료 발행 등